

어바인한미노인회 창립 3주년 행사



어바인한미노인회가 6일 커뮤니티센터 유니버시티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저소득 아파트 신청과 시니어 건강보험, 시니어 간병인 소개 및 양로호텔 정보를 제공했으며 라인댄스와 합창 공연도 있었다. 참가자들이 행사에서 열린 동양화와 인물화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어바인한미노인회 제공

한인 인구 221만 명, 9.3% 증가

가주 57만3,729명, 가구 중간소득 10만2,299불

한인 인구가 22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방 센서스국이 11일 발표한 '2024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 자료에 따르면, 혼혈을 포함한 한인 인구는 221만 1,632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3년 ACS 추산치인 202만3,517명보다 9.3%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온 한인 인구는 2023년 일시적으로 1.37%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반등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57만3,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주 14만7,548명, 뉴저지, 텍사스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들의 중간 연령은 36.9세였으며, 65세 이상 비율은 13.8%로 집계됐다.

가정에서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하는 한인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55.7%였다. 특히 뉴저지(70.9%), 캘리포니아(65.9%), 뉴욕(64.3%) 순으로 한국어 사용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지표를 보면, 한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10만2,299달러로 조사됐다. 주별로는 뉴저지 11만5,022달러, 뉴욕 10만9,193달러 등이었다. 주거비 측면에서는 세입자의 월 렌트비 중간값이 뉴저지 2,461달러, 뉴욕 2,401달러, 캘리포니아 2,293달러, 버지니아 2,190달러, 텍사스 1,771달러로 나타났다.

ACS는 센서스국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실제 인구를 전수조사하는 센서스와 달리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다.

플러턴, 도로청소 시간대 주차 차량 단속

10월 13일 월요일 구역부터, 다른 요일 순차적 확대

플러턴시가 오는 10월 13일부터 월요일 구역 내 도로 청소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재개한다.

플러턴시는 앞서 시의회 의결에 따라 표지판을 모두 교체해 정확한 청소 규정을 반영했다. 단속 시행 전인 10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청소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에는 과태료 대신 경고장만 발부된다.

플러턴은 요일별로 다섯 개 구역으로 나뉘며, 매일 해당 구역의 도로 청소가 이뤄진다. 이번에 가장 먼저 바뀌는 곳은 월요일 구역이며, 이후 화요일 구역의 표지판도 순차적으로 교체된다. 표지판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속 위반 시 과태료는 42달러다. 단, 청소가 끝난 뒤에는 표지판에 적힌 청소 시간대라 하더라도 차량을 다시 도로에 주차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도로 청소 단속은 중단됐던 플러턴시는 2023년 9월 시의회 의결로 단속을 재개했다. 당시 시는 도로 양쪽

을 같은 날 청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특히 다세대 주택이 많은 남동부 지역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면서 단속이 다시 중단됐다.

시의회는 올해 1월 격주로 도로 양쪽을 번갈아 청소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양쪽을 격주로 청소해 주민들이 차량을 옮길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방식이다.

지난 2월 회의에서 시의회는 표지판 교체가 완료되는 구역부터 단속을 재개하기로 4대1로 의결했다. 제이미 발렌시아 시의원만 여전히 주민들의 주차 어려움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프레드 정 시장은 1월 회의에서 "단속이 없다면 규정은 힘을 잃는다. 일부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지판 교체 예산은 34만6,766달러가 투입됐다. 시는 도로 청소를 통해 브레이크 분진, 쓰레기, 모퉁이 배수 시스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아 유지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롱비치항 컨테이너 60여개 와르르

9일 롱비치 항만에서 6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화물선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만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9시 직전, 미시시피호가 피어 G 컨테이너 터미널에 접근해 있던 중 발생했다.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선박에서 떨어져 나가 바다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화물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항만 관계자들은 미시시피호가 중국에서 출발했으며, 신발·의류·전자제품 등 코스트코, 타깃, 월마트, 소규모 상점들에 공급될 화물을 가득 싣고 있었다고 밝혔

다. 이번 사고로 일부 소매업체들이 상품을 소실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컨테이너에서는 샌들, 의류 등 상품이 바다에 떠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항만 노동자 리처드 폴크스는 "컨테이너가 한두 개 정도 떨어진다면 크레인 작업 속도가 조금 빨랐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떨어진 것은 심각한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35년간 항만에서 근무해온 한 작업자는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선박 내부 벨러스트(평형수) 문제로 균형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처방 없이 예약 없이
워크인 환영

행복한 약국, 웃음이 있는 약국

독감 주사
코비드/RSV
대상포진
페렴 주사
파상풍 주사
* 모든 백신 접종

정약국



Jung Pharmacy

각종 보험 환영(메디케어/메디케이드/HMO/PPO)



정은혜 약학 박사
(Grace Jung)

건강 상담/혈압 당뇨 측정/예방 접종/처방약 조제/무료 배달 서비스/한국약 판매/비타민/건강 보조제

정약국 714.752.6027

Open hours: 월-금 9am-6pm / 토 9am-2pm | Fax: 714.676.5508

카카오톡 ID: jungrx | 6771 Beach Blvd. Ste E, Buena Park, CA 90621



소스몰 맞은편, 명인만두 옆